

## 19세기 후반 영국 왕립지리학회의 만주와 백두산 탐사

배성준\*

### [초 록]

본 논문은 19세기 후반 왕립지리학회 기관지에 실린 7편의 여행기를 통하여 만주 및 백두산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들 여행기는 만주의 지형과 지리에 대한 세밀한 관찰 및 측정을 동반하고 현지에서의 견문에 기반하였으며, 유럽적 지식에 의한 토착적 지식의 전유를 통하여 만주의 풍경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의 여행이 가능하였던 기초는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구의 네트워크와 현지의 시설, 그리고 현지인의 실질적인 조력이었다.

19세기 들어 유럽에서 만주 지역 명칭인 ‘Mantchourie’가 등장하고, 이를 영역한 ‘Manchuria’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830년대부터 중국 본토와 구별되면서 동삼성을 포괄하는 만주 영역에 대한 인식이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통구스족을 기원으로 하는 만주족의 거주지

---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고 군사정권에 의하여 통치된다는 점에서 중국 본토와 구별되었으며, 만주 민족과 만주 역사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독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심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백두산도 새로운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유럽인에게 모습을 드러내었다.

## 1. 머리말

유럽인의 만주 내륙 여행은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난징조약 이후 유럽인의 개항장 출입과 거주가 보장되었고, 베이징조약 체결로 텐진조약의 내지 여행 조항이 비준됨에 따라 유럽인의 발길이 개항장을 넘어 만주 내륙까지 미치게 되었다. 1861년 상하이 영국상공회의소 회원인 미치(Alexande Michie)는 텐진에서 산하이관(山海關)을 넘어 선양까지 여행하였고, 1864년 러시아 탐사대는 쑹화강(松花江)을 따라 지린까지 나아갔다. 만주 내륙으로의 선교 활동은 내지 여행 허가 이전부터 이루어졌으며, 만주로 파견된 선교사들은 선교활동과 더불어 만주 내륙으로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기록을 남겼다.

1860년대 이래 유럽인의 만주 탐사를 뒷받침한 것은 영국 왕립지리학회(Royal Geographical Society)였다. 1830년에 런던지리학회로 출발한 왕립지리학회는 파리지리학회(1821), 베를린지리학회(1828)와 더불어 지리학 분과의 성립을 주도하는 한편 아프리카, 태평양, 남극 및 북극 등지의 탐험을 조직하거나 후원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860년대 이래 만주에 대한 지리 정보의 수집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선교사와 여행가들의 만주 여행기와 보고서를 왕립지리학회 기관지에 게재하였다. 왕립지리학회의 기관지에는 1861년 텐진에서 선양에 이르는 미치의 여행에서 1899년 선양에서 압록강 유역에 이르는 털리(Robert T. Turley)의 탐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7차례의 만주 및 백두산 여행기를 수록하고 있

다. 19세기 유럽인의 중국 여행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주의적 관점에 주목하였고,<sup>1)</sup> 영국과 러시아의 백두산 탐사에 대한 연구도 제국주의 각축과 팽창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1860년대 이래 왕립지리학회 기관지<sup>3)</sup>에 게재된 만주 및 백두산 여행기에서 보이는 ‘과학적 시선’에 주목함으로써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만주 및 백두산에 대한 인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 유럽의 만주 및 백두산 인식은 근대 만주 연구의 기원을 이루는 동시에 지역연구로서 만주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 1) 박용희(2009), 「19세기 유럽인들의 동아시아 인식—다섯 여행기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07; 이용재(2012),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중국여행기와 제국주의적 글쓰기」, 『중국어문논역총간』 30; Susan Schoenbauer Thurin (1999), *Victorian Travelers and the Opening of China, 1842-1907*,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Douglas Kerr and Julia Kuehn ed (2007), *A Century of Travels in China: Critical Essays on Travel Writing from the 1840s to the 1940s*, Hong Kong University Press.
  - 2) 김종현(2009), 「‘거대한 게임’과 영국의 극동 탐사활동에 관한 연구」, 『史叢』 69; 홍용호(2009), 「19세기말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백두산 탐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3(3).
  - 3) 왕립지리학회 기관지는 1831년부터 1880년까지 『런던 왕립지리학회 회보(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라는 제목으로 년 1회 발간되었으며, 1856년부터 1878년까지 『런던 왕립지리학회 기요(Proceedings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라는 제목으로 년 5-7회 발간되었으며, 1879년부터 1892년까지는 『왕립지리학회 기요와 지리학 월보(Proceedings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and Monthly Record of Geography)』라는 제목으로 매월 발간되었다. 이후 1893년부터 2011년까지 『지리학 회보(The Geographical Journal)』라는 제목으로 격월간으로 발간되었다.

## 2. 만주 및 백두산 탐사 개요

중국에 대한 소개는 왕립지리학회 창립 당시부터 이루어졌다. 독일 선교사인 카를 귀츨라프(Karl Gutzlaff)는 1831년 타이(Siam)를 출발하여 중국 해안을 따라 하이난에서 랴오둥만까지 항행한 기록을 광둥(廣東)에서 개신교 선교사가 발간하는 잡지인 『중국의 보고(Chinese Repository)』에 실었고, 왕립지리학회에서는 1833년 여행기의 발췌본을 학회 기관지에 수록하였다.<sup>4)</sup> 그의 여행기를 통하여 중국 연안에 있는 주요 항구, 만, 섬 및 주민과 교역 상황이 알려졌으며, 랴오둥만의 진저우(錦州)에서 들은 만주와 만주족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다. 여행기와 더불어 중국 지도를 소개하는 글도 게재되었다. 1844년에 윌리엄 허트맨(William Huttmann)이 기고한 「중국과 유럽의 중국 지도에 대하여」에서는 14세기 이래 중국과 유럽에서 제작된 중국 지도를 소개하고 있다.<sup>5)</sup>

1860년대 들어 만주로의 내륙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만주 여행기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861년 텐진에서 선양에 이르는 미치의 만주 여행기가 소개된 이래 1899년까지 7차례의 만주 및 백두산 여행기가 왕립지리학회 기관지에 게재되었다. 이들의 만주 및 백두산 탐사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들을 직업별로 나누어 보면, 선교사가 3명(윌리엄슨, 와일리, 텔리)으로 가장 많고, 관리 2명(제임스, 캠벨), 상인 1명(미치), 여행가 1명(비숍)의 순이다.<sup>6)</sup>

4) Charles Gutzlaff (1833), "Extracts from the Journal of a Residence in Siam, and Voyage along the Coast of China to Manchou Tartary",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3.

5) William Huttmann (1844), "On Chinese and European Maps of China",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14 (1844).

6) 제임스 일행에는 군인인 영허즈밴드(F. E. Younghusband, 1863-1942)와 영사관 관리인 풀포드(H. E. Fulford, 1859-1929)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영허즈밴드, 캠벨, 비숍이 왕립지리학회 회원이다.

[표 1] 왕립지리학회 기관지에 게재된 만주 및 백두산 탐사 개요

탐사자	일시	탐사지역	학회지 게재일자
A. Michie	1861.7	텐진-선양	vol. 33, 1863
Alexander Williamson	1867	만주 일대	vol. 39, 1869
H. E. M James, Younghusband	1886.5-12	만주 일대와 백두산	vol. 9, No 9, 1887 vol. 10, No 8, 1888
Charles W. Campbell	1889.8-11	서울-북평-감산-백두산	vol. 14, No 3, 1892
J. A. Wylie	1892.9-10	만주 중앙부	vol. 2, No 5, 1893
Bishop	1894	잉커우-지린, 연해주	vol. 5, No 2, 1895
Robert T. Turley	1899.2-	선양-압록강 하구	vol. 14, No 3, 1899

미치는 아직 유럽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의 교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859년 봄에 배를 타고 산둥반도, 랴오둥반도, 보하이만을 둘러보았고, 1861년 7월에는 텐진에서 선양까지 여행하고 만주 내륙 여행기를 학회 기관지에 게재하였다.<sup>7)</sup> 여행기에 따르면 그는 7월 6일 텐진을 출발하여 7월 11일에 산하이관에 도착하였고, 진저우, 잉커우(營口), 랴오양(遼陽)을 거쳐 7월 27일 선양에 도착하였다.

그는 텐진에서 선양에 이르는 각 지역의 지형과 지리, 군사 배치, 교역 상황, 주민 생활 등을 조사하였으며, 잉커우에서 수레에서 조랑말로 갈아타고 선양으로 향하였다. 그는 산하이관에서 장성과 성문, 초소와 막사를 살펴보고 “산하이관은 사실상 군사 주둔지이고 세관이며, 장성을 지나 베이징에서 선양에 이르는 간선 도로로서 공무 시설을 위한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하였으며,<sup>8)</sup> 그가 보는 선양은 중국의 다른 도시와 달리 견고한 성벽, 잘 정비된 거리, 번창하는 기운이 넘치는 도시였다. 그는 만주족이 “우세하고 훨씬 진취적인 인종에게 흡수되고 사라진” 만주의

7) A. Michie (1863), “Narrative of a Journey from Tiensin to Moukden in Manchuria in July, 1861”,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33.

8) A. Michie (1863), pp. 155, 161.

현실을 발견하고 놀라워 했으며, “지역의 빈곤과 주민의 부족 만큼이나 운송의 비용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역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다.<sup>9)</sup>

개신교 선교사인 알렉산더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은 성경의 보급과 전도를 위하여 1864년부터 1867년까지 만주와 몽골을 여행하였고, 1869년에 만주 여행기를 학회 기관지에 게재하였다.<sup>10)</sup> 그는 1867년 여름에 남만을 여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잉커우에서 출발하여 랴오양을 거쳐 선양에 이르렀고, 두 번째는 잉커우에서 랴오둥반도의 진조우(金州)를 거쳐 평황산(鳳凰山)과 ‘고려문’(Corean Gate)을 둘러보았다. 이어서 그는 선양을 넘어 내륙 깊숙히 들어갔다. 잉커우에서 출발하여 선양을 거쳐 파쿠먼(法庫門)에서 변장을 넘어 관청츠(寬城口), 쑹위안(松原), 아쉬허(阿什河)를 거쳐 쑹화장과 무단장(牡丹江)이 합류하는 이란(依蘭)에 이르렀다.

윌리엄슨은 연해주를 제외한 만주 전역을 3개의 지역-만주 남부, 만주 중앙부, 만주 북부 또는 랴오둥, 지린, 치치하얼/헤이룽장-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지형, 기후, 동식물, 하천, 주요 도시, 마을, 항구, 간선도로, 주민, 산업, 광물, 교역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는 1863년에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첫 해외 담당이 되어 성서의 보급을 위하여 만주를 여행하였지만,<sup>11)</sup> 만주의 지리와 주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는 철도 건설이 만주의 개방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지만 마적 때문에 교역이 번창하지 못하고 간선도로조차 안전하지 못하다고 보았다.<sup>12)</sup> 그리고 한족 이주민이 산둥반도에서 만주 남부

9) A. Michie (1863), pp. 165-166.

10) Alexander Williamson (1869), “Notes on Manchuria”,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39.

11) Alexander Williamson (1829-1890) in *Biographical Dictionary of Chinese Christianity*.

12) Alexander Williamson (1869), pp. 16-18.

로 몰려들고 만주족이 점차 한쪽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주의 개방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성과 풍부한 광물자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sup>13)</sup>

만주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는 1886년 인도 봄베이 총독부 관리였던 제임스(H. E. M. James)의 원정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제임스는 영국 국왕 근위대 소령인 영허즈밴드와 더불어 러시아 국경에 접해 있어 관심을 끌지만 유럽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만주를 여행하기로 하고, 특히 “왕립지리학회가 얼마전 발간한 지도에 상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전해지던 10,000-12,000피트 높이의 눈덮인 봉우리”<sup>14)</sup>를 탐사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1886년 3월 캘커타를 출발하여 홍콩, 베이징을 거쳐 잉커우에 도착하였고 여기에서 영국 영사관에 근무하고 있던 폴포드가 합류하였다. 이들은 5월에 잉커우를 출발하여 선양, 린장(臨江)을 거쳐 송화강 지류를 거슬러 백두산에 올랐으며, 송화강을 따라 지린으로 돌아왔다. 9월에 지린을 출발하여 송위안을 거쳐 치치하얼(齊齊哈爾)에 이르렀고, 하얼빈, 이란, ning안(寧安), 훈춘을 거쳐 11월에 노보키예프스크(Novaviyesk, 지금의 크라스키노)에 이르렀다. 돌아오는 길에 지린을 거쳐 장벽을 넘어 환청츠로 갔다가 선양을 거쳐 12월에 잉커우로 돌아왔다.<sup>15)</sup>

제임스 일행은 지나가는 곳마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지리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진귀한 식물과 조류의 표본도 만들었다. 또한 러시아 측 자료

13) Alexander Williamson (1869), pp. 10-11, 35-36.

14)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2011), 조준배 역, 『저자 서문』, 『백두산 등정기: 만주의 역사, 주민, 행정 그리고 종교에 관한 이야기』, 동북아역사재단, 5쪽. 오록정의 『연길변무보고』(1907)에 “속칭 백두산이라고도 하는데 산꼭대기에 사계절 눈이 쌓여 장백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해발 1만 척 또는 1만 2천 척이 되며, 산꼭대기에는 다섯 봉우리가 둘러 있고 가운데 호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백두산의 높이가 ‘10,000-12,000 피트’라는 인식은 ‘1만-1만2천 척’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된다.

15) H. E. M. James (1887), “A Journey in Manchuria”, *Proceedings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and Monthly Record of Geography*, vol. 9, no. 9.

와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지도에다가 자신들이 조사한 새로운 지리 정보를 추가하였다. 그들은 산의 비탈면이 희게 빛나는 것은 눈 때문이 아니라 “젓고 부서진 부서” 때문이라는 것과 백두산의 높이가 8,025피트(2,446 m)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임스는 1887년 9월에 만주 여행기를 기관지에 게재하였고, 영허즈번드는 중앙아시아 탐험에서 돌아온 이후인 1888년 9월에 만주 및 중앙아시아 여행기를 기관지에 게재하였다.<sup>16)</sup> 제임스는 만주 여행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만주의 역사, 지리, 문화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다. 그의 만주에 대한 지식은 선교사 윌리엄슨의 『북중국, 만주, 동몽골로의 여행』(1870), 선교사 로스의 『만주족 또는 중국의 지배 왕조』(1880) 같은 만주에 대한 각종 저술, 『중국의 보고』 같은 잡지, 영사 보고서 및 탐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에 기반한 것이었기에, 학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완한 『백두산 등정기』(1888)는 만주와 백두산에 대한 입문서 역할을 하였다.

조선 주재 영국 부영사 캠벨(Charles W. Campbell)은 1889년 조선 북부와 백두산을 여행하고 1892년 학회 기관지에 여행기를 게재하였다.<sup>17)</sup> 캠벨은 제임스 일행이 만주쪽으로 백두산에 오른 것을 알고서 조선쪽에서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탐사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1889년 8월 말에 서울을 출발하여 금강산, 원산, 함흥을 거쳐 북평에 이르렀다. 당시 북평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하나는 길주, 무산을 거쳐 두만강을 따라 백두산에 오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갑산, 혜산을 거쳐 압록강을 따라 백두산에 오르는 길—가 있었는데, 그는 빠듯한 일정상 갑산을 거쳐 백두산에 오르는 빠른 길을 택하였다.<sup>18)</sup> 9월 23일 북평을 출발하여

16) F. E. Younghusband (1888), “A Journey across Central Asia, from Manchuria and Peking to Kashmir, over the Mustagh Pass”, *Proceedings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and Monthly Record of Geography*, vol. 10, no. 8.

17) Charles W. Campbell (1892), A Journey through North Korea to the Ch’ang-pai Shan, *Proceedings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and Monthly Record of Geography*, vol. 14, no. 3.

갑산, 혜산을 거쳐 백두산을 올랐으나 겨울 추위와 부족한 식량 때문에 도중에 등정을 중단하였고, 갑산, 북평, 평양을 거쳐 11월 6일 서울로 복귀하였다. 그는 이르는 곳의 지형, 주민, 물산 및 주변 풍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며, 그의 여행기를 통하여 조선 측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노선이 알려졌다.<sup>19)</sup>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전도사인 와일리(J. A. Wylie)는 1892년에 만주 중앙부를 여행하고 다음해에 여행기를 학회 기관지에 게재하였다.<sup>20)</sup> 와일리는 일상 업무로부터 휴식을 취하고 만주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약 2개월 간 만주 지역을 여행하였다. 그는 9월 6일 랴오양을 출발하여 선양, 지린을 거쳐 아쉬허, 바옌수수, 베이린츠까지 올라갔다가, 닝안, 관청츠로 내려와서 남서쪽으로 파쿠먼, 신민(新民), 이조우(義州)를 돌아서 11월 10일에 랴오양으로 돌아왔다. 그는 제한된 시간에 넓은 지역을 여행하였기에 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돌아보았지만, 그가 거쳐가는 도시와 마을의 경관과 성벽 및 도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왕립지리학회 회원인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은 1894년부터 1897년까지 조선, 중국, 일본 등지를 여행하였으며,<sup>21)</sup> 1894년 6월부터 1895년 1월까지 만주 남부와 두만강 하류 국경지역을 여행하고 간략한

18) Charles W. Campbell (1892), p. 150.

19) 캠벨의 여행기에 의하면 혜산에서 북동쪽으로 15마일 떨어진 포천(Po-ch'en)이 마지막 거주지이며, 여기에서 백두산까지 평상시에는 10-12일 걸린다(Charles W. Campbell (1892), pp. 151-152).

20) J. A. Wylie (1893), "Journey through Central Manchuria",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2, no. 5.

21) 버드 비숍은 1894년부터 1897년까지 한국을 네 차례 방문하고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Korea and Her Neighbors』(1898), 1895년 6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을 여행하고 『알려지지 않은 일본 Unbeaten Tracks in Japan』, 1896년 12월부터 1897년 6월까지 양쯔강을 여행하고 『양쯔강을 가로질러 중국을 보다 The Yangtze Vally and Beyond』(1899)를 간행하였다.

여행기를 학회 기관지에 게재하였다.<sup>22)</sup> 비숍은 청일전쟁 발발 직후 제물포를 떠나 발해만의 즈푸(芝罘), 잉커우를 거쳐 선양에 도착하였으며, 선양에서 요양 후 다시 잉커우, 텐진을 거쳐 즈푸로 돌아왔다.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증오가 고조되자 11월 초 즈푸를 떠나 블라디보스톡으로 갔으며, 훈춘, 크라스노예(Krasnoye)에 이르렀다.<sup>23)</sup> 비숍의 여행기는 스코틀랜드 선교사 와일리의 타살 같은 청일전쟁 발발 직후의 급박한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으며, 두만강 하류의 삼국 국경지대에 대한 정보도 소개하고 있다.

‘영국성서공회’ 소속 선교사인 털리는 1899년 2월에 압록강 유역의 “무인지대”(no man’s land) 또는 “중립지대”를 둘러보고 여행기를 학회 기관지에 게재하였다.<sup>24)</sup> “무인지대”는 “선양에서 동쪽으로 80마일 정도에서 시작되며 그곳에서 동쪽으로 압록강까지 약 150마일”이라고 하고,<sup>25)</sup> 고려문(Korean gate)을 통하여 들어간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유조변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산림지대, 즉 훈장(渾江)과 압록강 유역을 가리킨다. 털리는 2월에 선양을 출발하여 동쪽으로 용링(永陵), 신빈(新賓)을 거쳐 통화(通化)에 이르렀으며, 남서쪽으로 환런(桓仁)을 지나 압록강까지 내려갔다가 관톈(寬甸), 애양(愛陽)을 거쳐 선양으로 돌아왔다.

털리는 만주 남부 중에서도 유럽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유조변 동쪽의 훈장과 압록강 산림지대를 여행하면서 지나가는 지역의 지형과 산물, 마을과 주민, 도로와 하천, 광물과 채광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는 통화에서 압록강까지 훈장을 따라 내려가면서 골짜기의 지형과 하

22) Mrs. Bishop (1895), “China, and Russian Manchuria”,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5, no. 2.

23) 학회 기관지에 실린 비숍의 후반부 편지는 크라스노예의 군대 주둔지에서 11월 24일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일정의 마지막이 크라스노예이다.

24) Robert T. Turley (1899), “Through the Hun Kiang Gorges; or, Notes of a Tour in “No Man’s Land” Manchuria”,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4, no. 3.

25) Robert T. Turley (1899), p. 292.

천의 상태, 지질과 동식물, 주민과 산물(산동 이주민의 화전 경작, 조선인 이주민의 수전 경작) 등을 조사하였다. 압록강에 이르러서도 압록강의 지형과 지질, 산물과 교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압록강 양안의 지형과 풍경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 3. 만주 여행기의 시선

#### 3.1. 과학적 시선

19세기 후반 만주를 여행하는 여행가는 만주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기록하였으며, 앞에서 살펴본 7편의 만주 여행기는 그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왕립지리학회 기관지에 게재된 이들 여행기나 보고서가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여행기와 차별적인 점은 만주와 백두산 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지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일 것이다. 왕립지리학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지리학 지식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학회 기관지에 수록되는 글들도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었다.<sup>26)</sup> 대부분의 여행기는 만주 각 지역의 지형, 주민, 자원, 교역 같은 지리 정보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 정보는 여행가의 세밀한 관찰과 측정 및 현지에서의 견문에 의존하고 있었다.

미치는 텐진에서 선양에 이르기까지 지나가는 곳의 지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묘사하였다. 그는 매일 이동한 거리와 도로의 상태를 기록하였으며, 랴오허 하구의 저습지에 대해서

---

26) 왕립지리학회는 “지식의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분야인 지리학의 증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Prospectus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1, 1831).

다음으로 두 개의 큰 층적 평야—그것은 나는 편리하게 바이허(白河)와 라오허(遼河)의 계곡이라고 부르겠다—는 우연히 지나가던 관찰자에게도 아주 최근에 물에 잠겨 있었음을 보여준다. 진흙 평원—해안선으로부터 경작지의 경계까지 내륙으로 몇 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고 해수위 위로 거의 올라가지 않은, 타쿠 근처 바이허 하구에 있는—은 척박하고 습지이다. 물은 염분이 섞여 있으며, 부드러운 표면은 햇빛에 의하여 말라붙어서 균열이 나 있는데, 얇은 소금 비늘로 덮여 있다.<sup>27)</sup>

고 해수면이 융기한 흔적에 대한 지질학적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윌리엄슨은 지나는 지역의 각종 지리정보를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별 기온, 수출입 현황, 생산 현황, 농사 현황, 인구 현황 등에 대하여 영사 보고서와 세관 기록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현황과 통계표를 제시하였다.<sup>28)</sup> 7개월간의 대장정에 오른 제임스 일행은 주변의 지형과 지리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측정할 수치를 기록하였다. 원정대의 과학 담당인 영허즈밴드는 “한쪽 어깨 위에는 망원경이 달려 있었고 다른 쪽 어깨 위에는 T형 아네로이드 기압계가, 목둘레에는 분광 나침반이 걸려 있었으며, 허리에는 온도계가 있었다. 그리고 스케치 도구가 엉덩이에, 공책은 가슴주머니에서 불쑥 빠져나와 있었”<sup>29)</sup>으며, 행렬의 끝에서 나침반으로 방향을 측정하거나 아네로이드 기압계로 고도를 재면서 나아갔다. 제임스는 동 식물 표본을 담은 양철상자를 지니고 길목에 있는 진귀한 꽃과 식물 및 곤충, 조류들을 관찰하고 표본을 채취하였다. 그는 백두산을 오르는 길목에서

---

27) A. Michie (1863), p. 163.

28) Alexander Williamson(1869), pp. 4, 12.

29)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2011), 242쪽.

끊임없이 숲속을 걷는 것은 다소 피곤한 일이었으나 우리는 새로운 꽃들과 꽤 훌륭한 새들을 보게 되었다. 여기저기에 커다란 야생 딸기판이 있었고, 진홍빛의 맛있는 매발톱나무 딸기들이 4피트 높이의 관목 숲속에서 엄청난 양으로 자라고 있었다. 야생 구즈베리와 까치밥나무 열매들 또한 있었으나 쓸모는 없었다. 영국 왕립 식물원의 조사를 통해 후에 필자가 야생 대황과 혼돈했다고 판명된 식물은 사실 커다란 방패 모양의 잎을 가진 골병풍이란 이름의 전혀 새로운 종이었다.<sup>30)</sup>

라고 숲속의 식물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새로운 종의 식물을 채집하였다.<sup>31)</sup> 털리는 통화를 거쳐 훈장을 따라 압록강까지 내려가면서 하천과 계곡이 이루는 지형, 그리고 주변의 광물과 이를 채굴하는 광산의 상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금 채광의 중심지인 통화를 지나서 훈장의 협곡으로 들어가면서 마주친 계곡에 대하여

우리는 동북동쪽으로 경사지고 각 면은 석회암 언덕으로 둘러싸였으며 여러 곳에서 아름답고 비옥한 측면 골짜기로 넓어지는, 넓고 개방된 계곡을 만났다. 석회암은 푸른 빛을 띠지만 강한 압력을 받아서 잎 모양으로 변형되고 때로는 불순물이 섞인 대리석으로 변형되었다. 길게 갈라진 틈은 석영이 들어차 있는 곳이 많으며, 가끔 층이 거의 수직으로 서 있다. 잎 모양의 방향은 항상 계곡과 일렬로 줄을 지어 있지만 불규칙적이다. 한때 이곳에 커다란 호수가 있었다는 점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 호수의 바닥은 화산 활동에 의하여 융기되어 있다; 이것은 암석들로 이루어진 둥글고 부드러운 바위로 구성되고 석회암 환경과 이질적이며 붉은 이토 용암의 단단한 행렬로 이루어진 역암 절벽들에 의하여 입증된다.<sup>32)</sup>

30)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2011), 267-268쪽.

31) 제임스가 최초로 발견한 품종은 화살곰취, 비로용담, 개명풍 등이며, 화살곰취와 비로용담의 학명에는 제임스의 이름이 들어 있다(김중현(2009), 183쪽).

고 계곡을 형성하고 있는 암석과 지질에 대하여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당시의 만주 여행기나 탐사기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이러한 과학적 시선은 18세기 후반 쿡 선장의 태평양 항해 이래 지리적 탐험과 과학적 지식에 대한 유럽의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이 시기 과학적 지식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린네의 분류체계와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의 과학적 인식체계였다. 린네가 『자연의 체계』(1735)에서 자연을 분류하고 종의 이름을 붙인 이래 18세기 말에 이르면 린네의 분류학은 유럽 전역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였다.<sup>33)</sup> 이에 따라 모든 여행과 탐사는 박물관적 성격을 띠었으며, 표본을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새로운 종에 이름을 붙이는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훔볼트는 자연사 탐험에 기초하여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인식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정확한 관찰과 정밀한 측정에 기반한 그의 자연사 인식은 19세기 들어 과학적 탐험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자연사 탐험과 과학적 인식의 주요한 특징은 ① 휴대용 도구를 사용한 현지에서의 정확한 관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② 수치 자료를 그래프와 지도의 형태로 시각화하며 ③ 동식물의 지리적 분포를 결정하는 지질학, 생물학, 기상학 간의 공간적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요약된다.<sup>34)</sup>

이러한 영향 아래 “과학적 여행”과 “문학적 관광”이 구별되었고, “과학적 관찰자”를 위한 교육용 지침서가 다수 간행되었다. 19세기 전반 영국에서 간행된 교육용 지침서로는 1831년에 간행된 『지리적 지식의 수집에 대한 조언』과 1841년에 간행된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또는 여행자의 회상』이 있다. 전자는 선교사와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로서, 전체상,

32) Robert T. Turley (1899), p. 295.

33) 메리 루이스 프랫(2015), 『제국의 시선』, 현실문화, 64-72쪽.

34) 캐년(S. Cannon)은 그의 과학적 인식체계를 ‘훔볼트적 과학(Humboldtian science)’이라고 부른다(Felix Driver (2001), *Geographical Militant: Cultures of Expedition and Empire*, Blackwell, p. 35).

지표면, 물리적 분할, 산, 하천, 호수, 해변과 항구, 화산과 광천, 지도와 해도, 천문학적 관찰, 기구, 기상, 자연사/박물학, 민족지 등 각 방면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수집하기 위한 관찰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sup>35)</sup> 왕립지리학회 회원인 잭슨(Jurian Jackson) 대령이 간행한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는 지리적 환경에 대한 과학적 관찰과 정확한 지리적 정보의 수집을 위한 조언 이외에도 과학과 문학, 예술, 역사, 군사적 능력과 조직, 기구와 작동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기압계, 온도계, 습도계, 크로노미터, 비중계/유속계 등 각종 기구에 대한 설명과 측정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sup>36)</sup>

왕립지리학회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리 정보의 수집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하여 “방문하기에 바람직한 장소, 그곳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수단, 수행하기에 가장 본질적인 탐구, 관찰되어야 할 현상, 구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자연사의 주제를 알려주고, 지리적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간략한 안내서를 여행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sup>37)</sup> 이에 따라 1854년 낫선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지역 문제나 관찰용 기구와 같은 장비와 관련된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알려주는 안내서인 『여행자에 대한 조언(Hints to travellers)』을 기 관지에 수록하였다. 이 글은 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측정용 기구와 측정 방법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도 작성, 천문학적 관찰, 측정용 기구를 통한 측정 방식, 짐꾸리기, 일일 체크리스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38)</sup> 『여행자에 대한 조언』은 1854년에 기관

35) *Hints for Collecting Geographical Information*, London, 1837.

36) J. R. Jackson (1841), *What to observe; or the Traveller's remembrance*, London.

37) “Prospectus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1(1831), pp. 7-8.

38) Henry Raper and Robert FitzRoy (1854), “Hints to Travellers”,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24.

지에 첨부된 형태로 발간된 이래 1878년의 제4판부터 단행본 형태로 간행되었으며, 표준적인 형식으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할 것과 믿을 만한 과학적 기구의 사용하여 측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19세기 들어 “과학적 여행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과학적 기구의 사용이 강조된 것은 지리 정보의 신뢰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8세기 후반 이래 많은 탐험가들이 현지에서의 관찰을 통한 경험적 지식의 축적을 강조하였지만, 지리적 지식의 이론화와 과학적 실험의 중요성을 주창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관찰자의 신분/계급, 인종/민족, 성에 따른 관찰 방식과 관찰 내용의 상이함도 문제가 되었다. 이처럼 관찰을 통하여 획득한 지리 정보의 신뢰성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과학적 기구를 통한 측정이 제기되었다.<sup>39)</sup> 이를 통하여 측정 수치라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리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관찰 주체에 따른 상이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 3.2. 토착적 지식의 전유

왕립지리학회 학회지는 각지의 지리정보가 소통되고 과학적 지식이 축적되는 대표적인 장이 되었으며, 여행가들이 작성한 여행기와 보고서는 왕립지리학회가 수집하고 축적하는 지리 정보의 자료가 되었다. 여행가나 탐험가들은 정확한 관찰과 세밀한 측정을 통하여,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각종 지리 정보를 모으고 여행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유럽에서 생산된 지식과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지식, 유럽인이 관찰하고 기록한 지리 정보와 현지인에게 들은 견문은 동일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다.

귀츨라프는 언어와 특징으로 볼 때 만주족이 퉁구스족에 속한다고 하

39) Felix Driver (2001), pp. 52-55.

면서 만주족의 기원에 대하여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서 토착 저술가들에 의하여 전해지는 이들 유목민들의 여정을 추적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일 수 있다. 중국인들이 기록으로 전해 오고 아주 빈약한 권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결코 야만인의 상태를 조사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기록을 운색하여 강림한 민족의 위엄을 갖추기 위하여 최대한의 거짓을 기꺼이 적곤 한다”<sup>40)</sup>고 토착 저술가나 역사가의 설명을 부정하고 있다. 제임스는 만주족의 역사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만주족의) 초기 역사는 묵덴의 존 로스 목사와 디메트리우스 불저씨에 의하여 탐구되었다. 그러나 이 두 권위자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각자가 도움을 받았던 중국 자문인들의 부정확성과 편견 또는 아첨으로 인해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sup>41)</sup>고 자신의 서술이 선교사 로스(John Ross)의 『만주족 또는 중국의 지배 왕조』와 왕립아시아학회 회원인 불저(Demetrius Boulger)의 『중국사』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는 반면 이들이 참조한 토착 저술가의 진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들에게 현지인이 전해주는 정보는 혼란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유럽인에 의하여 과학적인 지식으로 새롭게 생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럽인의 과학적 지식과 현지인의 혼란된 정보 사이의 구별은 백두산 탐사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제임스 일행은 탕허커우 조합회관의 부조합장을 안내인으로 고용하고 백두산으로 출발하면서

이제 10,000-12,000피트 높이의 눈덮인 봉우리를 찾으러 갈 시간이 되었다. 눈덮인 봉우리는 윌리엄슨 목사의 『중국 북부로의 여행』이라는 책에 첨부된 지도로 볼 때, 그리고 라벤스틴 씨와 다른 자료에 근거해 볼 때 틀림없이 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아아, 조합의

40) Charles Gutztaff(1838), *China Opened; or a Display of the topography, history, customs, manners, arts, manufactures, commerce, literature, religion, jurisprudence, etc. of the Chinese Empire*, London, p. 182.

41)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2011), 55쪽.

부조합장은 만주에는 그런 봉우리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러나 약 10-12일을 가면 라오페이산(老白山) 또는 ‘오래된 하얀산’(Old White Mountain)이라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정상에서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우리가 원한다면 안내해 줄 수 있지만 길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혼자 와야 한다고 했다.<sup>42)</sup>

라고 유럽인에 의하여 축적된 지리 정보에 근거하여 백두산을 찾고 있다. 그들에게 부조합장이 전해준 정보는 혼란되고 부정확한 지식이었다.

청의 관리 우모네(武默訥)가 백두산을 답사한 기록도 참조의 대상일 뿐이었다. 우모네가 강희제의 명을 받아 1677년 백두산을 답사한 기록은 1824년에 발간된 클라프로트(Julius von Klaproth)의 『아시아에 대한 회상록』(제1권)에서 소개되었으며, 1851년 『중국의 보고』에 실린 『중국의 장백산』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다. 우모네의 답사 기록이 백두산에 이르는 여정 및 백두산 정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빈약하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몇몇 알림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sup>43)</sup> 제임스도 클라프로트의 책에 있는 우모네의 답사기를 소개하지만 책의 부록인 여러 주해들 중 하나로 취급할 뿐이다. 제임스는 뒤 알드(Du Halde)의 『중국제국과 중국의 타타르에 대한 지리적·역사적·연대기적·정치적·물리적 서술』(1735)에 있는 백두산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면서 “예수회는 룡왕탄(龍王潭)의 푸른 물을 내려다 본 첫 번째 외국인들임에 틀림없었다. 확실히 그들은 유럽에 이 산의 존재를 처음 알린 사람들이었다”<sup>44)</sup>고 예수회 선교사 레지(Jean Baptiste Regis)가 백두산에 올랐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반면 우모네의

42) H. E. M. James (1887), pp. 541-542.

43) “The Chang-peh Shan, or Long White Mountains of Manchuria”, *Chinese Repository*, vol. 20, no. 6, 1851, p. 296.

44)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2011), 277쪽.

백두산 답사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느끼게 되겠지만 특히 알맞은 목초지와 꽃들과 관련하여 우리의 이야기와 꼭 들어맞는다. 페르레지와 마찬가지로 우모네는 5개의 봉우리들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항상 안개로 휩싸여 있는 점을 산의 특징으로 제시한다”<sup>45)</sup>고 레지와 제임스의 설명에 대한 참고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 3.3. 만주 여행의 물질적 기초

왕립지리학회는 설립 초기부터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과 긴밀한 연관을 맺어왔으며, 과학적 탐험과 그로부터 획득되는 지리 정보는 정책 운영에 기여해 왔다. 대표적으로 제3대 회장으로 20년 가까이 회장직을 유지한 머치슨(Roderick Murchison)은 리빙스톤의 아프리카 탐험을 후원함으로써 학회의 명성과 성장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군의 아비시니아 침공(1867-68)을 지원함으로써 학회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에 결부시켰다.<sup>46)</sup> 19세기 후반 왕립지리학회의 활동은 전쟁성, 식민성, 해군성 수로국, 육지측량부, 동인도회사 등 국가기구의 활동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학회 평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대부분 이들 기관에 제공되었다.<sup>47)</sup> 만주를 여행하는 선교사나 여행가들도 공식적, 비공식적 국가기구의 지원을 받았으며, 그들의 여행기나 보고서가 학회의 기관지에 게재되고 국가기구에 제공됨으로써 만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정책을 펴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귀출라프는 1832년 2월 로드 암허스트(Lord Amherst)호를 타고 마카오를 출발하여 9월까지 중국 동부 해안과 조선, 류큐를 항행하였고, 1832년 10월에는 실프(Sylph)호를 타고 다시 중국 동부 해안을 항행하였는

45)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2011), 277쪽.

46) Felix Driver (2001), pp. 43-44.

47) Mill (1930), *The Record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London, p. 42.

데,<sup>48)</sup> 그가 탔던 로드 암허스트호는 동인도 회사에서 임대한 상선이었고, 실프호도 동인도회사에서 임대한 자딘-매티슨 상사(Jardine, Matheson & Co)의 상선이었다. 1866년 로이드(W. V. Lloyd)는 스킨라호(H.M.S. Scylla)를 타고 함경도 초산에서 노보고르드스키,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올라만까지 만주의 동부 해안을 탐사하였는데,<sup>49)</sup> 로이드가 이용한 스킨라호는 영국 해군의 함선이었다.

잉커우의 영국 영사관은 만주 여행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였다. 영사관에서는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인력과 물자의 보급소 역할을 하였다. 윌리엄슨은 1864년부터 1867년까지 세 차례의 만주 여행을 잉커우에서 출발하였으며, 보고서에서 인용하는 통계수치는 영국 영사 메도우즈(Thomas Taylor Meadows)와 세관에 근무하던 메르슨(M'Pherson)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sup>50)</sup> 제임스와 영허즈밴드는 잉커우의 영국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고 영사관에 근무하던 폴포드와 합류한 뒤 원정을 출발하였으며, 영사 알렌은 선양의 총독에게 제임스 일행의 보호를 요청하였다.<sup>51)</sup> 비숍은 청일전쟁 발발 직후 부영사의 경고를 듣고 제물포를 떠나 발해만의 즈푸에 있는 영국 영사관에 몸을 의탁하였다. 알렌 영사는 무일푼으로 건너온 비숍이 퍼거슨 상사에서 여행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sup>52)</sup>

선교사들이 만주에 세운 성당이나 교회, 선교회관 등도 여행가들이 휴식을 취하고 정보를 얻는 장소가 되었다. 선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임스, 비숍도 선교시설 및 선교사와의 교류를 적극 활용하였다. 제임스 일행은 송화장 하류에 있는 베이린즈, 바엔수수, 샤오시허에서 전

48) Charles Gutztaff (1834),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 1833*, London; F. Westley and A. H. Davis.

49) "Notes on the Russian Harbours on the Coast of Manchuria",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37(1867), p. 212.

50) Alexander Williamson (1869), pp. 12, 15.

51)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2011), 48-49쪽.

52) I. B. 비숍(2000), 신복룡 역,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177-179쪽.

도협회 신부들의 환대를 받았으며, 현지 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sup>53)</sup> 비숍은 선양에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의 선교사인 로스를 만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의료 선교사인 크리스티 박사는 그녀의 부상을 치료해 주었다.<sup>54)</sup>

만주 여행의 또다른 물질적 기초는 가이드, 통역사, 짐꾼 같은 현지인이었다. 그들은 여행의 필수적인 조력자이자 현지의 정보원으로서, 여행을 출발할 때부터 귀환할 때까지 유럽인 여행자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낯선 지역으로의 여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행기에서는 곤란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유럽인들의 의지만 부각될 뿐, 현지인들의 조력은 곧잘 순조로운 여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묘사되었다.

제임스 일행의 원래 계획은 압록강을 따라 발원지까지 올라간 다음 분수령을 지나서 두만강의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탕허커우 조합회관의 부조합장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노선을 따라 두만강의 계곡까지 가는 길을 발견하기는 불가능하다”<sup>55)</sup>고 하였고, 제임스 일행은 보급품의 재고를 고려하여 원래의 계획을 수정해서 지린쪽으로 돌아가야 했다. 캠벨은 10월에 들어서서야 포천에서 백두산 등정을 시작했기에 춥고 험악한 날씨를 무릅써야 했다. 그는 “비가 진눈깨비로, 진눈깨비가 눈으로 바뀌고, 심하게 계속되자 한국인 가이드들은 한번 이상 백두산 등정을 포기해야 한다고 재촉했”고, 가장 나이가 많은 가이드가 졸도하자 “미신을 신봉하는 한국인들은 그의 발작을 산신의 노여움으로 돌”<sup>56)</sup>렸다고 서술하였다. 비숍은 그녀를 뉴장(牛莊)에서 선양까지 안내한 가이드에 대하여 “안내자인 왕씨의 한정된 영어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으며 대화조차도 불가능했다”<sup>57)</sup>고 혹평하였다.

53)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2011), 328-332쪽.

54) I. B. 비숍(2000), 191-192쪽.

55) H. E. M. James (1887), p. 547.

56) Charles W. Campbell (1892), pp. 152-153.

## 4. 만주와 백두산의 근대적 구성

### 4.1. 만주 지역 명칭의 출현

현재 만주 지역을 의미하는 영어 표기인 ‘Manchuria’는 1840년대부터 학술지나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1844년 왕립지리학회 기관지에 윌리엄 허트맨(William Huttmann)이 기고한 『중국과 유럽의 중국 지도에 대하여』에서 ‘Manchuria’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다.<sup>58)</sup> 그는 14세기 이래 중국과 유럽에서 제작된 중국 지도를 소개하고 지도 정보의 축적을 설명하면서 지역 명칭으로서 몽골, 준가르, 동투르크스탄, 티베트와 더불어 ‘Manchuria’를 나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보고(Chinese Repository)』에도 ‘Manchuria’ 표기가 등장한다. 1846년에 만주 지역 주교인 베로레스(Emmanuel J. F. Verroles)가 보낸 편지를 읽고 있는데, 글의 제목에서 ‘Manchuria’ 명칭이 등장할 뿐 아니라 그가 만주에 도착한 이후 만주와 조선에서의 선교 상황을 설명하면서 ‘Manchuria’를 구성하는 세 지역—랴오둥, 지린, 헤이룽장—의 개략적인 지리정보를 소개하고 있다.<sup>59)</sup>

184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지역 명칭인 ‘Manchuria’의 기원에 대하여 엘리엇(Mark C. Elliott)은 유럽과 일본의 상호 영향을 강조하였다. 즉 유럽, 특히 네덜란드 지도의 영향으로 18세기 말 일본에서 지역 명칭으로 ‘滿洲(Manshū)’가 출현하였고, 일본 지도가 유럽에 유통되면서 1830년대 서구에서 ‘Manchuria’ 표기가 출현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60)</sup> 엘리엇 이후 ‘Manchuria’ 표기의 일본 기원설이 이어졌지만 이러한 주장은

57) I. B. 비숍(2000), 186쪽.

58) William Huttmann (1844), p. 124.

59) “Missions in Manchuria and Corea”, *Chinese Repository*, vol. 15, no. 9, 1846.

60) Mark C. Elliott (2000), “The Limits of Tartary: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9, no. 3.

‘Manchuria’ 표기가 일본과 유사한 시기에 유럽에도 등장한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18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아시아나 중국 지도는 18세기 초 예수회 선교사를 중심으로 제작되어 유럽으로 들어온 『황여전람도』를 저본으로 하였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도 제작자인 당빌(D’Anville)은 『황여전람도』를 토대로 중국 지도를 제작하여 뒤 알드의 지리서에 수록하였으며, 수록된 지도를 수정하여 1737년에 『중국, 중국의 타타르, 티베트의 새로운 지도책』을 간행하였다. 당빌은 장성 이북 지역을 ‘중국의 타타르(La Tartarie Chinoise)’라고 표기하고, 유조변 이동과 송화강 이남 지역을 ‘만주족의 고국(Ancien Pays des Mantcheou) 또는 ‘만주족(Mantcheoux)라고 표기하였다. 당빌은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만주족이 흥기한 지역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민족 명칭이나 국가 명칭으로 사용되던 “만주”가 공간의 명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빌의 지도책은 발간 직후 영어로 번역되어 유럽에 널리 확산되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서 ‘Mantcheou’는 ‘Manchew’로 표기되었다.<sup>61)</sup>

19세기 들어 유럽에서 제작된 아시아나 중국 지도에서 지역 명칭으로서 만주를 나타내는 프랑스어 ‘Mantchourie’가 출현하였다. 1804년 파리에서 지리학자인 멘텔(Edme Mentelle)과 브랭(Malte Brun)이 간행한 『세계 모든 부분의 수리적·물리적·정치적 지리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소개되는데, ‘Mantchourie’는 몽골(Mongolie), 칼묵(Kalmoukie), 소부하라(Petite-Bucharie)와 더불어 ‘중국의 타타르’를 구성하고 있다.<sup>62)</sup> 특히 “만주족의 나라 또는 ‘Mantchourie’는 북으로는 이르쿠츠크의 러시

61) 그린(John Green)의 『동서 타타르 전도』(1741)와 보웬(Emanuel Bowen)의 『새롭고 정확한 아시아 지도』(1747)에서는 ‘중국의 타타르’의 일부를 ‘Manchews’로 표기하였다.

62) Edme Mentelle et Malte Brun (1804), *Geographie: Mathématique, Physique et Politique de Toutes les Parties du Monde*, Paris: H. Tardieu.

아 정부, 서로는 몽골, 남으로는 중국, 황해, 조선, 동으로는 일본해와 타르해협 사이에 걸쳐 있”<sup>63)</sup>다고 만주의 지역적 범위를 제시하는데, 이는 만주의 새로운 표기인 ‘Mantchourie’가 이전의 ‘Manchew’ 표기가 가진 민족 명칭의 흔적을 완전히 탈각하고 온전한 지역 명칭으로서 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821년 파리에서 간행된 『중국 제국과 일본 전도』에서 ‘Mantchourie’는 몽골, 다우르, 칼묵 등과 더불어 중국 제국을 구성하고 있다.<sup>64)</sup>

프랑스어 표기인 ‘Mantchourie’는 다양한 유럽어로 번역이 되면서 만주의 보편적인 지역 명칭으로 정착해 나가는데, 영어 번역으로는 먼저 ‘Mandshuria’가 나타나고 이후 1830년대에는 ‘Mantchouria’, 1840년대에 ‘Manchuria’로 변화하였다. 1806년에 런던에서 간행된 『중국의 타타르와 독립 타타르의 새로운 지도』에서 ‘중국의 타타르’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Mandshuria’ 표기가 처음 등장하며,<sup>65)</sup> 1814년 런던에서 간행된 지도에서도 ‘Mandshuria’는 ‘중국의 타타르’를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으로 나타난다.<sup>66)</sup>

1830년대 들어 ‘Mantchouria’ 표기는 왕립지리학회 기관지와 『중국의 보고』에 거의 동시에 등장한다. 『중국의 보고』에서는 1832년에 중국에서 발간된 리 명철(李明哲)의 『대청만년일통경위여도(大清萬年一統經緯輿圖)』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1835년에 영국에서 발간된 파버리와 앨런사(Parbury, Allen & Co.)의 『중국과 인접국의 지도』를 소개하면서 중국제국이 중국 본토, 만주(‘Mantchouria’), 식민지 세 부분으로 구성되

63) Edme Mentelle et Malte Brun (1804), p. 151.

64) “Carte generale de l’Empire Chinois et du Japon” (1821), by A. H. Brue, David Rumsey Historical Map collection.

65) “A New Map of Chinese & independent Tartary” (1806), by John Cary, David Rumsey Historical Map collection.

66) “Tartary” (1814), by John Thomson, David Rumsey Historical Map collection.

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67)</sup> 특히 만주 명칭에 대하여 “Mantchou 혹은 라틴화되었을 때의 Mantchouria, 지배 왕조의 모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68)</sup> 1833년 왕립지리학회 기관지에서 발췌하여 게재한 귀츨라프의 여행기에서 지역 명칭으로서 ‘Mantchouria’를 사용하고 있다.<sup>69)</sup> 그는 1838년에 간행된 『개방된 중국』에서 중국 제국을 중국 본토와 종속국으로 구분하고 몽골과 더불어 ‘Mantchouria’의 지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sup>70)</sup> 1830년대 유럽에서 발간된 중국 지도에서는 ‘Mantchouria’와 더불어 ‘Mantchoouria’, ‘Mandchouria’, ‘Mantchouri’ 같은 유사한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1830년 영국에서 간행된 『페너의 포켓 지도』의 경우 중국 제국 지도에서 몽골과 더불어 ‘Mantchouri’를 표기하고 있다.<sup>71)</sup>

이처럼 만주의 지역 명칭인 ‘Manchuria’는 19세기 들어 프랑스에서 지역 명칭으로 등장하여 다양한 영어 표기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1840년대부터 학술지나 보고서에 등장하였다. 1840년대 중반에 등장한 ‘Manchuria’ 명칭은 이후 왕립지리학회 기관지와 『중국의 보고』를 중심으로 보급되면서 아시아 관련 학술지와 보고서로 파급되었다.<sup>72)</sup> 1858년에 게재된 『아무르강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노트』에 첨부된 지도에

67) “Review of Ta Tsing Wan-neen Yih-tung King-wei Yu-too”, *Chinese Repository*, vol. 1, no. 4, 1832, p. 113; “Political divisions of the Chinese empire: Map of China and the adjacent countries, drawn from the latest surveys and other authentic documents”, *Chinese Repository*, vol. 4, no. 2, 1835, pp. 51-52.

68) “Review of Ta Tsing Wan-neen Yih-tung King-wei Yu-too”, *Chinese Repository*, vol. 1, no. 2, 1832, p. 35.

69) Charles Gutztaff (1833), p. 309.

70) Charles Gutztaff (1838), *China Opened; or a Display of the topography, history, customs, manners, arts, manufactures, commerce, literature, religion, jurisprudence, etc. of the Chinese Empire*, London, p. 181.

71) “Chinese Empire” (1830), by Fenner, Rest., David Rumsey Historical Map collection

72) 왕립지리학회 기관지의 경우 1849년, 1850년의 『Address to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에 ‘Manchuria’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Manchuria’ 명칭이 표기된 이래,<sup>73)</sup> 왕립지리학회의 지도에서 ‘Manchuria’ 명칭이 일반화되었다. 그렇지만 영국과 미국에서 발간되는 지도에서는 여전히 ‘Mantchouria’, ‘Manchooria’ 같은 표기가 통용되고 있었다.

#### 4.2. 만주 지역의 구성

만주 지역 명칭인 ‘Manchuria’ 명칭이 출현하는 과정은 곧 만주 지역에 대한 유럽의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하나의 지역으로서 만주에 대한 인식은 1860년대 만주 여행기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윌리엄슨은 만주의 범위에 대하여 “북위 39도에서 49도, 동경 120도에서 133도 내에 위치해 있으며”, 북으로는 헤이룽장, 남으로는 보하이만과 조선, 동으로는 우수리강, 서로는嫩江(嫩江), 송화강과 남서변장을 경계로 보았다.<sup>74)</sup> 또한 만주를 3개의 지역, 즉 랴오둥, 지린, 치치하얼/헤이룽장으로 나누고, 랴오둥과 지린은 유조변장, 지린과 치치하얼은 송화강을 경계로 삼았다. 제임스의 만주 지역 인식도 윌리엄슨과 유사하다. 그에 따르면 “만주는 중국 제국의 동북쪽 귀퉁이를 차지하는 타타르의 일부인데, 북쪽과 동쪽은 러시아, 남쪽은 조선, 서해, 라오둥만을 경계로 삼는다 …… 때때로 성징(盛京)이라는 용어가 중국인에 의하여 바다부터 아무르강에 이르는 지역 전체에 적용되지만, 통상적인 이름은 ‘동삼성’(東三省) 또는 동쪽의 세 지역들, 즉 묵텐이 수도인 남쪽의 랴오둥 지역, 같은 이름의 수도를 가진 중앙의 지린 지역, 치치하얼이 수도인 북쪽의 헤이룽장 지역을 가르킨”고 하였다.<sup>75)</sup>

유럽에서 만주 지역에 대한 인식은 만주 명칭과 더불어 19세기 초반

73) “Map of the Amur and adjacent districts”,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28 (1858).

74) Alexander Williamson (1869), p. 1.

75) H. E. M. James (1887), p. 531.

에 등장하였다. 만주 지역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세계 모든 부분의 수리적·물리적·정치적 지리학』(1804)에서는 만주의 대략적인 범위가 제시되지만 선양을 수도로 하는 랴오둥 지역만이 부각되었다. 동삼성을 포괄하는 만주 지역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1830년대부터이다. 『중국의 보고』에서 1832년에 중국에서 발간된 「대청만년일통경위여도」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1835년에 영국에서 발간된 「중국과 인접국의 지도」를 소개하면서 만주 지역이 세 지역-성징/묵덴, 지린, 헤이룽장/치치하얼-으로 구성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만주의 동삼성 지역은 통구스족을 기원으로 하는 만주족의 거주지이고,<sup>76)</sup> 장군에 의하여 통치된다는 점에서<sup>77)</sup>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지역으로 인식하였다. 1838년에 간행된 『개방된 중국』에서 귀츨라프는 만주를 성징/랴오둥, 지린, 헤이룽장/치치하얼의 세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의 영역, 역사, 도시, 산물, 기후, 민족, 지형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sup>78)</sup>

이처럼 동삼성을 포괄하는 만주 지역에 대한 인식은 중국의 동삼성 인식과 상이하다. 입관 이후 청조는 왕조의 발상지인 동북지역에 팔기주방(八旗駐防)을 설치하고 평텐장군, 닝구타(寧古塔)/지린장군, 헤이룽장장군을 두어 관할하게 함으로써 내지 18성이나 번부(藩部)와도 다른 관리 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유조변을 개수하여 왕조의 발상지를 보호하는 한편 평텐장군 관할지와 닝구타/지린장군 관할지를 나누는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관할구역이 구분됨에 따라 건륭제 때부터 평텐장군의 관할구역을 편의적으로 ‘성징성(盛京省)’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지린장군과 헤이룽장장군의 관할 구역도 ‘지린성’, ‘헤이룽장성’으로 불리게 되었다.<sup>79)</sup>

76) “Review of Ta Tsing Wan-noon Yih-tung King-wei Yu-too”, p. 113.

77) “Political divisions of the Chinese empire: Map of China and the adjacent countries, drawn from the latest surveys and other authentic documents”, p. 57.

78) Charles Gutztaff (1838), pp. 16, 169, 181.

79) 구범진(2006), 「청대 만주지역 행정체제의 변화-주방체제에서 주현체제로-」,

이후 장군이 관할하는 동쪽의 3개 성을 가리키는 통상적인 용어로 ‘동삼성’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3개의 성을 통합하는 하나의 지역 범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sup>80)</sup> 3개 성의 주현체제로의 개편과 통합적 관리라는 의미에서 ‘동삼성’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들어서이다. 관내 한인의 대규모 유입과 더불어 러시아의 영토 할양과 군사적 점령으로 대외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일전쟁으로 동삼성의 행정개혁이 제기되면서 비로소 통합적인 지역 명칭으로서 동삼성 명칭이 보편화되었다.<sup>81)</sup> 이처럼 중국에서의 동삼성 인식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1830년대부터 동삼성에 해당하는 만주 인식이 생겨났고 1860년대 왕립지리학회 만주 여행기에서는 이러한 만주 지역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제임스의 저술에서 만주의 원주민과 만주의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 심화되었다. 제임스는 “만주의 원주민은 정확하게는 타타르족의 한 부족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타타르인은 예나 지금이나 조선인이나 심지어 몽골인처럼 잘 정의된 별개의 민족이 아니었다. 타타르인은 오히려 몽골인과 퉁구스인의 핏줄을 반씩 타고난 소규모 유목 씨족집단의 후예였고, 조선과 아무르강 사이의 산맥 속에 살면서 여러 대에 걸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다고 설명하였다.<sup>82)</sup> 이러한 그의 설명은 만주족의 기원에 대한 기존의 설명과는 달리 만주 지역의 민족에 대한 해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만주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로스는 만주족의 역사를 누르하치가 군사를 일으키는 해인 1583년을 출발점으로 삼지만,<sup>83)</sup> 제임스는 랴오동의 ‘조선’(기자

『동북아역사논총』 14, 81쪽; 정혜중(2006), 「광서연간(1875-1908)의 동북관리와 1907년 동삼성 설치」, 『중국학보』 54, 390쪽.

80) 웨이위안(魏源)은 『聖武記』(1846)에서 “17行省과 東三省이 중국이다. 중국으로부터 서로는 回部, 남으로는 衛·藏, 동으로는 朝鮮, 북으로는 俄羅斯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81) 동삼성 명칭과 동북삼성 건성에 대해서는 정혜중(2006), 390-394쪽.

82)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2011), 50-52쪽.

조선)과 고구려, 또는 ‘숙신-부여·읍루-물길-말갈(발해)’을 거쳐 ‘요(거란족)-금(여진족)-청(만주족)’으로 이어지는 만주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sup>84)</sup> 물론 대부분의 분량은 누르하치의 탄생에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는 청조의 역사에 할애하고 있지만, 기자의 조선에서 여진의 금에 이르는 언급은 만주사의 체계화라는 관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만주 여행기에서 보이는 만주 지역의 현재적 모습은 한족에게 동화되어 사라져 가는 만주족과 파괴와 테러를 일삼는 마적이었다. 미치는 만주의 지리정보를 소개하면서 “나는 여행하는 도중에 타타르인들을 거의 볼 수 없어서 놀랐다. 늙은 만주족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완전히 기반을 상실하였고, 우월한 문명의 힘에 의해서 만주의 야생 초원으로 내몰리거나 지배적이고 더욱 기업가적인 인종 속으로 흡수되어 왔다. 남아 있는 소수의 만주족들은 언어, 태도, 관습에서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다르다.”<sup>85)</sup>라고 만주족의 현실을 묘사하였다. 제임스도 중국 북부에서 물러드는 중국인 경작자로 인해서 만주 관습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면서, “멀지 않아 만주는 명확한 존재로서 남지 못할 것이며, 곧 광저우 같이 필수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제국의 중국적 일부가 될 것이다. 만주는 현재 이행의 상태에 있다”<sup>86)</sup>고 하였다. 윌리엄슨은 마적이 횡횡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의 안전도 교역의 번창도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만주의 개방을 위한 철도의 건설이 긴급하다고 하였다.<sup>87)</sup> 비숍도 만주 곳곳에서 파괴와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마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동 만주의 이러한 공포 상태에도 불구하고 만주는 중국의 통치 영역 중에서 가장 번창하는 지역의

83) John Ross (1880), *The Manchus, or The reigning dynasty of China: their rise and progress*, Paisley, J. and R. Parlane.

84)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2011), 56-57쪽.

85) A. Michie (1863), p. 165.

86) H. E. M. James (1887), p. 564.

87) Alexander Williamson (1869), p. 16.

하나였으며 외국 무역은 해마다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sup>88)</sup>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러한 낙관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즉 유럽의 지원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만주의 풍부한 광물자원에 주목한 킬리는 “유럽의 기업과 항행가능한 수로가 결합된다면 이 지역(무인지대에서 묵텐에 이르는 만주 남부)은 만주의 ‘중공업지대’가 될 것이고, 무인지대는 “엘도라도”가 될 것이다”<sup>89)</sup>라고 전망하였다.

#### 4.3.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서의 백두산

제임스 일행은 아직 유럽인이 등정한 적이 없고 왕립지리학회 소장 지도에도 위치가 불분명한 백두산을 탐사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희귀한 자연사 표본이나 정확한 지리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장백산이라고 불리우는 “10,000-12,000피트 높이의 눈덮인 봉우리”를 향하여 원정을 떠났다. 그들은 잉커우를 출발하여 곧바로 백두산으로 향하였고, 백두산을 오르면서 산이 하얗게 빛나는 것이 눈 때문이 아니라 부석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백두산 정상에 풍경에 대하여

마침내 우리는 정상에 도달했고 끝을 굽어보았다. 약 350피트에 달하는 분화구의 끝자락에 서서 함성을 질렀고 가장 깊은 곳의 색깔이 투명한 파란색인 아름다운 호수를 보았다. 위쪽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호수의 표면은 레만 호수처럼 고요했고, 산의 울퉁불퉁한 꼭대기를 장식하고 있는 환상적인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왕관을 비추고 있었다. 정말 멋진 장관이었다. 우리는 호수의 너비가 약 1과 1/2마일이고 둘레는 6-7마일이라고 생각했다 …… 호수의 북쪽 끝에서 에르다오장 강 또는 두 번째 강의 발원지이자 송화강의 동쪽 지류인 조그만 개천이 시작된다.<sup>90)</sup>

88) I. B. 비숍(2000), 183쪽.

89) Robert T. Turley (1899), p. 302.

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백두산 정상에 올라 정상의 호수를 실제로 목격하고 송화강이 그곳에서 발원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또한 비등점 온도계로 백두산의 높이가 8,025 피트라는 것을 측정하고서야 비로소 “10,000-12,000 피트 높이의 눈덮인 봉우리”라는 유럽의 부정확한 정보를 정정할 수 있었다.

부영사 캠벨은 제임스 일행의 백두산 탐사 소식을 접하고 조선쪽에서 백두산을 올라 천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는 백두산 정상에 오르지 못했지만 백두산과 천지의 조선식 명칭을 소개하면서 백두산의 주변 풍경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백두산이 조선과 청에서 성스러운 산으로 추앙 받는다고 하면서

조선에서 말하는 조종산(祖山)은 사화산이고 그 분화구는 샘에서 솟아나는 물로 가득차 있었을 것이라는 나의 조악한 지질학적 설명을 듣는다면 (한국인들은) 예의를 차린 놀라움을 보였을 것이나 그리 쉽게 믿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땅 밑의 용암으로부터 막 분출된 것처럼 보이는 검은 먼지, 용암재 덩어리, 몇 마일 동안 압록강의 독을 따라 늘어선 바위들을 가리켰으나 별로 소용이 없었다 …… 나의 관찰에 따르면 포천(Po-chen)과 백두산 사이에 있는 숲의 대부분은 틀림없이 계속되는 분출 과정에서 백두산으로부터 나온 화산 성분 위에서 자랐을 것이다.<sup>91)</sup>

라고 백두산의 지형에 대한 지질학적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제임스나 캠벨의 백두산 인식은 조상의 발상지나 성스러운 산으로 생각하고 신비로움과 영험함을 체험하고자 하는 조선이나 청의 인식과는 상이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백두산은 지질학적, 지리학적 탐구의 대상이었으며, 백두산에 대한 기존의 부정확한 지리 정보를 정정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90) H. E. M. James (1887), pp. 543-544.

91) Charles W. Campbell (1892), p. 154.

이러한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백두산에 대한 인식은 18세기 중반 뒤 알드의 지리서를 기원으로 한다. 뒤 알드의 백두산 서술은 『황여전람도』 제작을 위하여 동북 지역을 측량했던 예수회 선교사 레지의 설명을 옮긴 것인데, 백두산 정상 지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정상의 호수가 쌍화장의 발원지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sup>92)</sup> 19세기 중반에 『중국의 보고』에 실린 「만주의 장백산」을 통해서 백두산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유럽인으로서 아무도 오르지 못한 장백산이 “조선의 국경 근처, 두만강과 압록강 사이에, 북위 42도 동경 127.5도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으며, 산맥과 정상의 이름에 대한 혼돈, 산이 빛나는 것이 모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얼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sup>93)</sup>

이렇게 축적된 백두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란 앞에서 유럽인에 의하여 축적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현지인의 혼란되고 모순된 지식이 부정되고 유럽인에 의한 직접적 관찰과 측정에서 나온 정보만이 과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백두산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우모네의 기록보다는 백두산의 지리적 측면을 묘사한 뒤 알드의 서술이 과학적인 지식으로 평가되었으며, 제임스 일행의 백두산 등정으로 백두산은 정확한 지리 정보와 더불어 새로운 과학적 대상으로 유럽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었다.

## 5. 맺음말

1861년 만주 내륙으로 길을 연 미치의 여행에서 1899년 압록강 ‘무인 시대’를 조사한 털리의 탐사까지 19세기 후반 왕립지리학회 기관지에 실

92)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2011), 275-276쪽.

93) “The Chang-peh Shan, or Long White Mountains of Manchuria”, p. 298.

린 7편의 만주 및 백두산 여행기는 만주와 백두산에 대한 과학적인 지리 정보를 제공하였다. 왕립지리학회는 낯선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의 수집에 관심을 가졌으며, 만주를 여행하는 여행기들은 정확한 관찰과 세밀한 측정, 그리고 현지에서의 견문에 기반하여 만주의 지형과 지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여행기를 작성하였다.

이들 여행기는 유럽인의 과학적 시선을 통하여 만주와 백두산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들어 민주 지역 명칭인 ‘Manchuria’ 표기가 일반화되는 과정은 곧 만주에 대한 유럽인의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1830-40년대 왕립지리학회 기관지에서 만주 지역 명칭이 ‘Manchuria’로 일반화되면서 중국 본토와 구별되고 동삼성을 포괄하는 만주 지역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 처음에는 통구스족을 기원으로 하는 만주족의 거주지이고 군사정권에 의하여 통치된다는 점에서 중국 본토와 구별되었으나, 점차 만주 지역의 독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갔다. 이와 더불어 백두산도 새로운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유럽인에게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만주와 백두산에 대한 근대적 인식은 유럽적 지식에 의한 토착적 지식에 대한 전유를 통하여 만주의 풍경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으며,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구의 네트워크와 현지의 시설, 그리고 현지인의 동원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뒷받침되었다.

19세기 후반에 구성된 만주와 백두산에 대한 인식은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근대적 역사지리 인식의 기원이 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본격화되는 일본의 만주 역사지리 인식은 유럽의 근대적 만주 인식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형성되었으며, 20세기 한국과 중국의 만주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본고에서는 여행기에 기반하여 단편적인 언급에 그쳤지만 정책 문서를 포함한 여타 자료를 통하여 여행기가 가진 복합적 측면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만주와 백두산에 대한 근대적 담론 형성과정은 본격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 Michie (1863), "Narrative of a Journey from Tiensin to Moukden in Manchuria in July, 1861",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33.
- Alexander Williamson (1869), "Notes on Manchuria",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39.
- H. E. M. James (1887), "A Journey in Manchuria", *Proceedings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and Monthly Record of Geography*, vol. 9, no. 9.
- Charles W. Campbell (1892), A Journey through North Korrea to the Ch'ang-pai Shan, *Proceedings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and Monthly Record of Geography*, vol. 14, no. 3.
- J. A. Wylie (1893), "Journey through Central Manchuria",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2, no. 5.
- Mrs. Bishop (1895), "China, and Russian Manchuria",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5, no. 2.
- Robert T. Turley (1899), "Through the Hun Kiang Gorges; or, Notes of a Tour in "No Man's Land" Manchuria",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4, no. 3.
- I. B. 비숍(2000),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 헨리 에번 머치슨 제임스(2011), 『백두산 등정기: 만주의 역사, 주민, 행정 그리고 종교에 관한 이야기』, 동북아역사재단.
- 메리 루이스 프랫(2015), 『제국의 시선』, 현실문화.
- 구범진(2006), 「청대 만주지역 행정체제의 변화-주방체제에서 주현체제로-」, 『동북아역사논총』 14.
- 정혜중(2006), 「광서연간(1875-1908)의 동북관리와 1907년 동삼성 설치」, 『중국학보』 54.
- 홍응호(2009), 「19세기말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백두산 탐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3(3).

Mark C. Elliott (2000), “The Limits of Tartary: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9, no. 3.

Felix Driver (2001), *Geographical Militant: Cultures of Expedition and Empire*, Blackwell.

원고 접수일: 2017년 7월 14일

심사 완료일: 2017년 7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7년 7월 26일

Abstract

---

The Travel to Manchuria and Mt. Beakdu  
by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in the Late 19th Century

Bae, Sungjo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new understanding of Manchuria and Mt. Beakdu in the late 19th century by analyzing seven travel writing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Royal Geographical Society*. The travel writings not only contain the detailed observations and measurements of geographical features but also reveal the appropriation of local knowledge by European knowledge. The one material base of their travels was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the British Empire's state apparatus and local facilities by which means imperial policy was executed. The other base was the practical support from the natives.

The French name of Manchuria, "Mantchourie" began to be use at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and soon the English name made an appearance. Along this line, the new understanding of Manchuria, which includes the three provinces in Northeast China, emerged from the 1830s. At first, the region was distinguished from China proper on the ground that it was the homeland of the Manchu people and ruled by warlords. However the regional identity started growing through the gradual awareness of a Manchurian history and Manchurian nation. It was at this juncture that Mt. Beakdu also appeared to Europeans as the object of scientific research.

---

\*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